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6<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9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3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5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7 번 이사야(Isaiah) 40 장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야고보서 (James) 5:13-20</b>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대
설 교 Sermon	<b>“신앙을 삶으로(12)- 기도할찌니라”</b> <b>(Living out Your Faith – You Should Pray)</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12 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 29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무기력해졌으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악 가운데, 힘 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 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약5:13-14)**  
“Is any 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Is anyone happy?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Is any one of you sick? He should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him and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NIV **James 5:13-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2 (주일)	9/13 (월)	9/14 (화)	9/15 (수)	9/16 (목)	9/17 (금)	9/18 (토)
본문	삼하7 고후1 겔15 시56,57	삼하8,9 고후2 겔16 시58,59	삼하10 고후3 겔17 시60,61	삼하11 고후4 겔18 시62,63	삼하12 고후5 겔19 시64,65	삼하13 고후6 겔20 시66,67	삼하14 고후7 겔21 시68

말/씀/사/경/회 REVIVAL MEETING (강사: 김대호 목사)

말씀사경회 ① (9/17금 오후7:30)	“주인 바뀌었어요” (롬6:22)
말씀사경회 ② (9/18토 오전6:30)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벧전4:19-5:4)
찬양세미나 ③ (9/18토 오전8:30)	“지혜로운 찬양” (엡5:15-20)
말씀사경회 ④ (9/18토 오후7:30)	“영의 일을 생각하라” (롬8:5-8)

지난 주일(9/5) 말씀

신앙을 삶으로(11)-“길이 참으라” (약 5:7-12)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는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는 결론적인 권면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주의 강림하심까지” 즉, “세상 끝 날까지”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라고 하면 (마치) 이것은 또 다른 폭력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마 크로쑤메사테)는 (단지) “고통을 감내하라” 또는 “막연히 참고 인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그 가운데 분명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쉽게 속단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뜻이며, 또한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함부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당장의 판단을 유보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길이 참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1)농부와 2)선지자들과 3)웁의 예를 들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과 은혜로 인해, 길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